이슈브리프

No. 2025-20

김정은 공개 활동으로 본 북한 상반기 정세 평가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2025-07-24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폐쇄된 북한체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5년 1~8월 김정은의 공개 활동 분석을 통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하는 것은 북한 분석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상반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총 51회이며, 분야별로는 군사(24회)와 경제(13회)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해 예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 김정은 공개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親인민 시책' 과시가 예상되는 기간에 여전히 군사 분야 활동이 많다는 점이다. 연초까지는 핵미사일 위협 능력 과시에 주안을 두다가, 3월 이후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에 이어, 4~5월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 독려로 변화했다. 김정은은 대미 위협을 트럼프 취임 시점까지로 조절하면서, 이후에는 대러 협력 강화로 최대한 실리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올해 김정은의 경제 분야 활동은 지난해와 같은 민생용 공장·기업 시찰이나, 경제 협의회 주재는 전무(全無)하고, 건설 현장 방문이 전부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도 2월 중에 집중되어 김정은이 "요새는 솔직히 준공식·착공식만 따라다니기에도 빠르하다"라고 할 정도다. 경제 분야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경공업공장 2차년도 건설 현장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아 지난해 그가 내세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한 열의가 약해진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주재한 6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소개 없이 “상반기 투쟁 결과와 전진 기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군사력 증강, 5개년 경제계획 관철, 지방공업 발전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추세를 이어 내년에 소집되는 9차 당 대회에서도 5년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 결과를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공개하는 까닭은 정책집행 부진 및 개선점을 별도의 ‘당내(黨內) 본’으로 제한적으로 배포해 체제의 취약점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5년 상반기 김정은 공개 활동의 특징은 노동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있음에도 김정은이 민생보다 군사 분야에 몰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실용외교도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공개 활동’의 의미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란 노동신문 등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보도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동향을 외부 관찰자들이 붙인 개념이다. ‘공개 활동’에는 회의 주재, 행사 참석, 공연 관람, 군부대 시찰, 공장·기업 지도, 보육원 방문, 외빈 접견 등이 있다. 외부 관찰자들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의 움직임은 폐쇄된 체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활동을 ‘혁명 활동’이라고 하며, 그중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홍수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현지 지도’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개 활동’이라는 개념에는 ‘현지 지도’ 활동을 포함하나 이른바 ‘혁명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만 포함한다. 예컨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외국 수반과 축전 교환이나 ‘담화’ 발표를 ‘혁명 활동’으로 소개하나, 이 활동에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 활동’ 개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예년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6개월간 공개 활동은 51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회보다 5회 감소했다. 월별 활동은 4월(6회)을 제외하고

월 8~10회 빈도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군사 분야가 24회(47%), 경제 분야가 13회(25%)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군사 26회, 경제 10회)와 유사한 추세였다. 나머지 활동 빈도는 정치 분야 6회, 대외분야 5회, 사회 분야 3회를 차지했다(아래 [표1] 참고).

[표1] 김정은의 2025년 1~6월 공개 활동 분류

구분	활동 형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정치	신년행사, 회의 지도, 금수산궁전 등 참배	2	1	-	-	2	1	6
군사	미사일/훈련 참관, 국방성/군수공장/조선소	3	4	4	4	7	2	24
경제	건설 현장 지도, 착공식·준공식 참가	1	5	2	2	-	3	13
사회	예술단/공로자 접견, 인민반장들 기념사진	2	-	1	-	-	-	3
대외	러 인사 접견(쇼이구 3, 문화상), 대사관 방문	-	-	1	-	1	3	5
합계		8	10	8	6	10	9	51

* 필자 정리.

상반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의 특징을 평가하면,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친 인민 시책’ 과시가 예상되었던 기간에 여전히 군사 분야 활동이 많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그 전부가 건설 현장 방문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김정은의 활동 양상이 각종 건설 현장 방문은 2월 중에, 군수공장·조선소 방문 및 군사훈련 지도는 3~5월 중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로 몰아치기식 활동을 보인 점과 대외분야 활동은 러시아 관련 행사뿐이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이 같은 김정은의 특징적인 공개 활동과 6월 당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¹

2025년 상반기 김정은의 특징적 공개 활동

1. 재래식 무기 개발 및 군사훈련에 주력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노동당 창건 5, 10주기 기념일을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생필품 공장이나 보육원 등 민생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함으로써 노동당 창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도모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혔듯이,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보면 오는 10월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있음에도 군사 분야 활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과거 '축제' 행사를 앞두고 민생 현장 시찰에 비중을 두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군사 활동으로는,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에 이어 핵물질 생산기지를 방문해 "핵물질 생산계획 초과 수행"을 주문했고,² 2월 국방성과 김일성정치대학 및 강건종합군관학교 방문에서는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을 독려했다. 김정은은 3~5월 중에는 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지도에 몰두했다. 3월에 함선을 건조 중인 조선소 2회 방문, 대공미사일 및 무인기 개발 지도가 있었고, 4월에 특수부대 훈련 참관,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참석이 있었다. 5월에는 10회의 활동 중 8회가 군사 분야 활동으로, 탱크 공장을 방문해 성능 개선을 주문하고, 군수공장에 가서 수출용 포탄 생산을 독려했으며, 합동타격훈련, 병종별종합훈련, 방공 및 공군훈련, 포사격 훈련 등 각종 군사훈련을 빈번히 지도했다([표 2] 참고).

상반기 김정은의 군사 분야 활동의 특징은 연초까지는 핵미사일 위협 능력 과시에 주안을 두다가, 3월 이후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에 이어 4~5월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 독려로 변화한 점이다. 대미 위협은 트럼프 취임 시점까지로 조절하면서, 이후에는 대러 협력 강화로 최대한 실리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작년 9월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올 1월까지 핵농축시설 공개(9.13, 1.29), 전략미사일 지하기지 공개(10.23), ICBM 화성-19형 시험 발사(10.31) 등으로 대미 핵미사일 위협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엔 ICBM 도발은 자제하면서 재래식 무기 개발 동향이 뚜렷해졌다. 북한이 대미 위협 수위를 조절한 배경에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우호적 관계를 잇달아 표명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선언한 종래의 대미 '강 대 강 대응' 원칙에 따라 미국의 태도가 어느 수준까지 변화할지 관망하면서 대러 밀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포탄 생산 활동에 대해 "평년 수준의 4배"라고 했듯이³ 대러 수출용 포탄 증산과 무기 성능 개량 추진도 있었지만, 무인기, 대공미사일, 구축함 등 자체 재래식 전략 현대화에 목표를 둔 활동 역시 두드러졌다. 대부분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성능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의 상반기 군사 활동에서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을 부쩍 강조한 점도 특징이다. 그는 국방성을 방문(2.8)해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하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전쟁

준비"를 주문했고,⁴ 김일성정치대학(2.24) 및 강건종합군관학교 방문(2.25)에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지휘 능력"을 강조했다.⁵ 이 같은 강화된 군사 활동을 토대로 7년 만에 소집된 훈련일꾼대회(5.14~15)에서 북한군 총참모장은 "앞으로 있게 될 혁명전쟁에서의 승리" 운운하며 '훈련 혁명'을 주장했고,⁶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5.29)에서는 "전략·전술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논의했다.⁷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더불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러시아 파병 경험을 활용한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했고, 북한군 지휘부의 '자신감'도 제고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구 차원에서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인식 속에서 러시아와 밀착 관계가 있을 때 최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로 평가되며, 그 결과 상반기 북한 정세에서 당 창건 행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 증강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을 국지 도발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내부적으로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병행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 구현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및 강대국 각축에 있어 북한의 역내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표 2] 김정은의 2025년 1~6월 군사 분야 활동

월	보도일자, 군사 분야 활동 내용
1월	1.7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1.26 중요무기체계시험 참관, 1.29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총 8회 중 3회 군사)
2월	2.9 국방성 축하 방문, 2.25 김일성정치대학 방문, 2.26 강건 명칭 종합군관학교 현지지도, 2.28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 (총 10회 중 4회)
3월	3.8 함선 건조사업, 3.21 남포조선소, 3.21 지대공 미사일 개량, 3.27 무인기 및 탐지 전자전 연구 사업 (총 8회 중 4회)
4월	4.4 특수부대 훈련장, 4.25 구축함 진수식, 4.30 구축함 미사일 성능시험, 4.30 함선 건조 관련자 기념 촬영 (총 6회 중 4회)
5월	5.4 탱크공장, 5.7 포탄생산 등 군수공장, 5.9 초대형방사포·미사일 합동사격훈련, 5.13 병종별 전술종합훈련, 5.15 방공·공군훈련 지도, 5.21 청진조선소 구축함 진수식 참관(사고발생), (5.28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지도→ 정치분야 활동으로), 5.29 포사격 경기 참관 (총 10회 중 7회)
6월	6.13 해군구축함(강건호) 진수식, 6.14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8회 중 2회)

* 필자 정리.

2. 각종 건설 현장 착공식 집중 방문

상반기 김정은의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은 매우 단순하다. 민생용 공장·기업 시찰이나, 경제 협의회 주재는 전무(全無)하고, 6개월 동안 13차례 각종 '건설 현장 방문'이 전부다. 그것도 연초에 집중되어, 1~2월 중에 민생 경제에 관심이 있는 듯 몇 차례 경제 분야 지도를 시능하다가, 3~5월 중에는 군사 분야 활동에 몰두하는 형태였다. 김정은은 지난해엔 1월에 농기계 전시장(1.2)과 '닭공장'(1.7)을 현지 지도하고, 당 정치국 회의(1.25)를 소집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업 외 민생 경제 진흥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줄기차게 건설사업 착공식 혹은 준공식 테이프만 끊었다. 김정은이 2월 16일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착공식에서 "요새는 솔직히 따라다니며 준공식과 착공식만 해도 빠르하다"라고 할 정도였다.⁸

김정은의 상반기 건설 현장 방문 내용으로는 1월 지방공업공장 준공식(1.7)을 필두로, 2월에는 강동군 병원 착공식(2.6), 압록강 온실농장 착공식(2.10),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착공식(2.14),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착공식(2.16), 완공된 평양종업병원 시찰(2.27, 10월에

개원 예고) 등 건설 현장만 5차례 찾았다. 3~4월에는 온포 근로자휴양소 건설장 방문(3.7)에 이어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장을 연이어 3차례 찾았다(3.15, 4.5, 4.15 준공식). 5월에는 빈번한 군수공장 방문 및 군사훈련 참관으로 그나마 있던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이었던 건설 현장 방문마저 아예 없었다. 6월에는 강동군 병원(6.2) 및 구성시 병원 건설장(6.12) 현지 지도에 이어,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에 참석했다([표 3] 참고).

[표 3] 김정은의 2025년 1~6월 경제 분야 활동

월	보도일자, 경제 분야 활동 내용
1월	1.8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1회)
2월	2.7 '지방발전20×10정책'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 착공식 참석, 2.11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 착공식 참석, 2.15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착공식 참석, 2.17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 참석, 2.28 완공된 평양종합병원 시찰 (5회)
3월	3.8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 공사 현지지도, 3.16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 (2회)
4월	4.4 준공 앞둔 화성지구 3단계구역 중요봉사시설 운영준비 현지지도, 4.16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참석 (2회)
5월	없음
6월	6.3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장 현지지도, 6.10 구성시 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6.26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 참석 (3회)

* 필자 정리.

김정은의 경제 분야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난해 그가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지방경공업 공장 증설 정책에 대한 열의가 약해진 점이다. 김정은은 1월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외에 2차년도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지방발전 정책의 외연을 경공업 공장 증설에서 양식장·온실·병원 건설로 확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착공식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낙후된 지방경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새로 준공된 지방공장을 찾아 격려하거나 생산을 독려하는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선전매체를 통해 '5개년 경제계획 완결'을 주문하였으나, 김정은이 직접 민수 공장을 찾아 증산을 독려하는 활동 역시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북한 선전매체는 김정은이 '위민헌신의 분주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소개했다. 6월

24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상반기 공개 활동을 선전하는 글을 실었다.⁹ 그 기사에서는 핵미사일 지도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제외한 경제 분야 활동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특히 건설사업의 확장을 중점 선전했다. 그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이 연초에 노력 혁신자·공로자들과 기념 촬영하면서 '증산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라고 호소'한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 양양'을 도모한 점이다. 또 올해 신년 경축 공연에서 소개된 '우리는 조선 사람'이란 노래를 김정은이 따라 읊조렸다고 소개함으로써 '우리 국가제일주의' 신념 고취에 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내각 산하 생산 현장 시찰에 인색한 경향을 보였다. 우선 가시적인 현지 지도 '효과' 거두기가 어렵고, 특정 생산 현장이 현지 지도 단위로 지정되면 차별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지도자의 경제 분야 활동은 생색내기 좋은 건설 현장 방문으로 집중되곤 했다. 그래도 '경축 행사' 전에는 민수 생산 현장을 찾아 독려하던 행태와는 달리 올해 건설 현장 외 생산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군사·대외 등 여타 활동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지만, 선전과는 달리 생산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상반기 투쟁 결과 긍정 평가' 부각

다음은 김정은의 군사·경제 외 여타 분야 공개 활동을 살펴본다. 상반기 정치 분야 활동은 5회로, 신년 경축 공연 참가, 비서국 회의·중앙군사위원회 회의·전원회의 등 노동당 회의 주관 3회, 김정일 생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사망 3돌 현철해 무덤 참배가 있었다. 대외분야 활동 5회는 전부 러시아 관련 행사이다. 러시아 안보 서기장을 3회(3.21, 6.4, 6.17) 접견했고, 러시아 전승절에 즈음해 주평양 러시아 대사관 축하 방문(5.9)과 방북한 러시아 문화상 접견이 있었다. 김정은의 사회 분야 활동은 연초 재일본 소년 예술단 접견에 이어 '노력 혁신자·공로자'들과의 기념 촬영(1.2)이 있었고, 3월에는 '전국 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도 기념 촬영(3.20)을 했다.

상반기 여타 분야 동향을 평가하면, 우선 대외 동향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은 상반기 중 러시아 안보 서기 쇼이구를 3차례나 접견해(3.21, 6.4, 6.18)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및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 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12일에는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방북해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 이어

김정은을 접견해 상호 협력관계 확대·발전을 논의했다. 김정은은 “북러가 모든 문제에서 견해를 함께한다”고 했고, 라브로프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관심사만 지원한다”고 해 국제 및 한반도 문제에서의 쌍방의 공조 강화를 과시했다. 라브로프는 ‘김정은의 가까운 미래 방러’도 시사했다.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당시 북러 관계가 거래적 관계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혈맹’ 관계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이 거의 ‘필사적으로’ 푸틴에 매달려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표 4] 김정은의 2025년 대외분야 공개활동(7.16 기준)

월	보도일자, 대외 분야 활동 내용
3월	3.22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 세르게이 쇼이구 접견
5월	5.9 러시아 전승절 즈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 방문
6월	6.5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 세르게이 쇼이구 접견 6.18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 세르게이 쇼이구 접견 6.19 푸틴 방북 북러 조약 체결 1주년 기념연회(북 외무성, 러 대사관) 6.30 러시아 문화상 접견 및 예술공연 관람
7월	7.13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접견(7.12, 원산)

* 필자 정리.

한편 대남 태도는 지난해에 이어 무시·단절의 의도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김여정의 담화도 대남보다는 대외 논조로 변화했고,¹⁰ 북한 관영매체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12.3~6.3) 정국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간결한 사실 보도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김정은은 ‘한국의 혼란 정세’를 수시로 브리핑을 받았을 것이다. 정치 분야는 내부적으로 당정 간부 교체와 차기 당 대회에서 밝힐 정책 방향 설정에 분주한 정중동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분야는 ‘5개년 계획 완결’을 위한 경제 선동에 집중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시책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6월 당 전원회의 결과 평가이다. 북한은 6월 21~23일 소집된 8기 12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정책집행 결과를 결산하고, 일부 정책과제 조정 문제, 제9차 당대회 소집 결정, 주요 공업부문 활성화 문제, 기층당 ‘전투력’ 제고 및 당 기구사업 ‘정간화(정예화)’ 문제, 조직 문제(6개 의제 추정)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¹¹ 북한은 전원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원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연설과 채택된 결정서를 ‘당내(堂內) 본’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비추어볼 때, 해당 문건에 하반기 정책 방향과

개선점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략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면, 우선 “상반기 투쟁 결과와 전진 기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점에서 군사력 증강, 5개년 경제계획 관철, 지방공업 발전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선전했을 것이다. 북한은 “9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했다면서 소집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전례대로 한다면 오는 8월 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2026년 1월 당 대회 소집’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미증유의 투쟁이 전개되는 시대적 특징과 변화되는 객관적 형세에 부응한 정책과제들의 전략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전략적 조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아래 노동신문의 다른 기사로 볼 때 건설사업을 제외한 경제 건설이나 국방력 건설에서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현존 세멘트 생산량을 가지고서는 예견한 2025년의 방대한 건설 대상들을 다 해낼 수 없으므로 일부 대상들을 다음 해로 조월(이월)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며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는 참으로 깊은 뜻을 새겨 주시었다. 수판알만 튀겨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증산의 방도를 대중의 사상·정신적 양양에서 찾을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인민의 정신력이 이 세상 제일 강한 힘이고 그 힘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숭고한 뜻이 높 뛰고 있었다.” (2025.6.24. 노동신문)

이 밖에 “기층당 조직의 전투력과 활동성 제고 및 당내기구 사업을 정간화·정예화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층당 조직에서의 ‘당 대표자’로부터 중앙당 핵심 간부에 이르기까지 당 간부 선출 과정에서 ‘당성이 강한 참신한 인물 선정’을 논의했을 것이다. 북한이 예상대로 내년 1월 9차 당대회를 소집한다면 12월 중에서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와 방청자 선출을 위해 12월 중에 각급 당 조직의 ‘대표회’를 진행하고, 1월 당대회 중에는 당 지도 기구 선출이라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직 문제 취급’에도 불구하고 ‘당 공보’로 교체 인물을 보도하지 않은 점에서 고위급 인물 교체가 없거나, 일부 중앙당 간부 해임(리일환 당비서 등) 문제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북한 정세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통해 본 북한 정세는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민생보다 군사 분야에 몰두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서둘러 재래식 무기도 현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군사 분야 정책 성과에서도 '핵·재래식 병행 발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지난해 김정은이 강조했던 민생 챙기기, '도·농 병행 발전' 정책은 다소 퇴조하는 모습이다. 무리한 건설사업 확장으로 시멘트 등 자재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제활동 결과를 '긍정 평가'한 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장 추세'로 포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북한 정세는 9차 당대회 소집 절차와 당 창건 80돌 행사 진행, '80일 전투' 등 주민 노력(勞力) 동원 강화가 예상되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예견된다. 정치 일정은 8월 정치국 회의(8차 당대회는 2020년 8월 당 전원회의에서 소집)에서 '9차 당대회 소집' 공고, 10월 당 창건 80돌 행사, 11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대회 준비' 토의, 12월 당 대표자 선출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창건 80돌 행사로는 대규모 열병식 및 집단체조, 무기 전람회가 예상되며, 열병식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 '피로써 맺은 북러 동맹' 과시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 강국' 및 '전면적 부흥의 시대'를 선언하고, 열병식 직전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김정은이 주민 생활 향상보다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 강화에 몰두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보다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병행 발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판단되나, 재래식 전력의 증강은 군사 모험주의, 국지 도발 가능성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신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유연 접근을 추진하고, 북한도 내부 정치행사와 대러 밀착으로 분주한 상황이라 하반기 대남 도발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북한의 군사력 보강에 따른 대비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무기체계 및 군사훈련에서 북한군의 능력 증강을 정확히 진단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와 내년 9차 당대회 시기까지 양대 정치행사 준비, '충성의 선물 마련'을 위한 경제 선동, '경축 분위기' 훼손 방지를 위한 사회 통제 강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잠재적 불만은 더욱 누적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화된 동원 체제로 내부 불만과 갈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내실 없는 양대 행사의 후유증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쯤 대남 도발을 통한 긴장 조성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추가 파병 등으로 대러 밀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중 관계도 하반기에 5년여 만에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7.12 NHK) 등 종래 소원했던 관계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목격한 김정은은 서둘러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한 점을 정당화하면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방호시설을 보강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미 접근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치적 만들기로 활용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수위를 선제적으로 조절하거나, 경주 APEC 계기 돌출적 판문점 회담을 요구하는 등 돌출적 대북정책 구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실용외교도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
- ¹ 이 글은 2025년 8월에 발간될 예정인 『북한』(북한연구소 간행)에 게재한 필자의 글을 보완하였음.
- ²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1.29.
- ³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2경제위원회산하 중요군수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5.7.
- 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문군창건절에 즈음하여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2.9.
- 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2.26.
- ⁶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 진행", 『노동신문』, 2025.5.17.
- ⁷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확대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25.5.30.
- 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노동신문』, 2025.2.17.
- 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가 있어 우리의 전진은 언제나 즐기차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따라 경이적인 변혁의 길로 줄달음쳐온 상반년의 뜻깊은 나날들을 더듬으며", 『노동신문』, 2025.6.24.
- ¹⁰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해 11월 26일 남측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 비난 담화를 내놓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더니, 1월 20일 미 대통령 취임 당일에 엉뚱하게도 "'벨라루스의 대북 최고위급 상봉 조직'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성 담화를 내놓았고, 이어 "미 항모의 부산항 입항 및 프리덤 실드 연습 비난" 담화(3.4), "미·한·일의 시대착오적 비핵화 집념" 비난 담화(4.8)가 있었다.
- ¹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5.6.24.